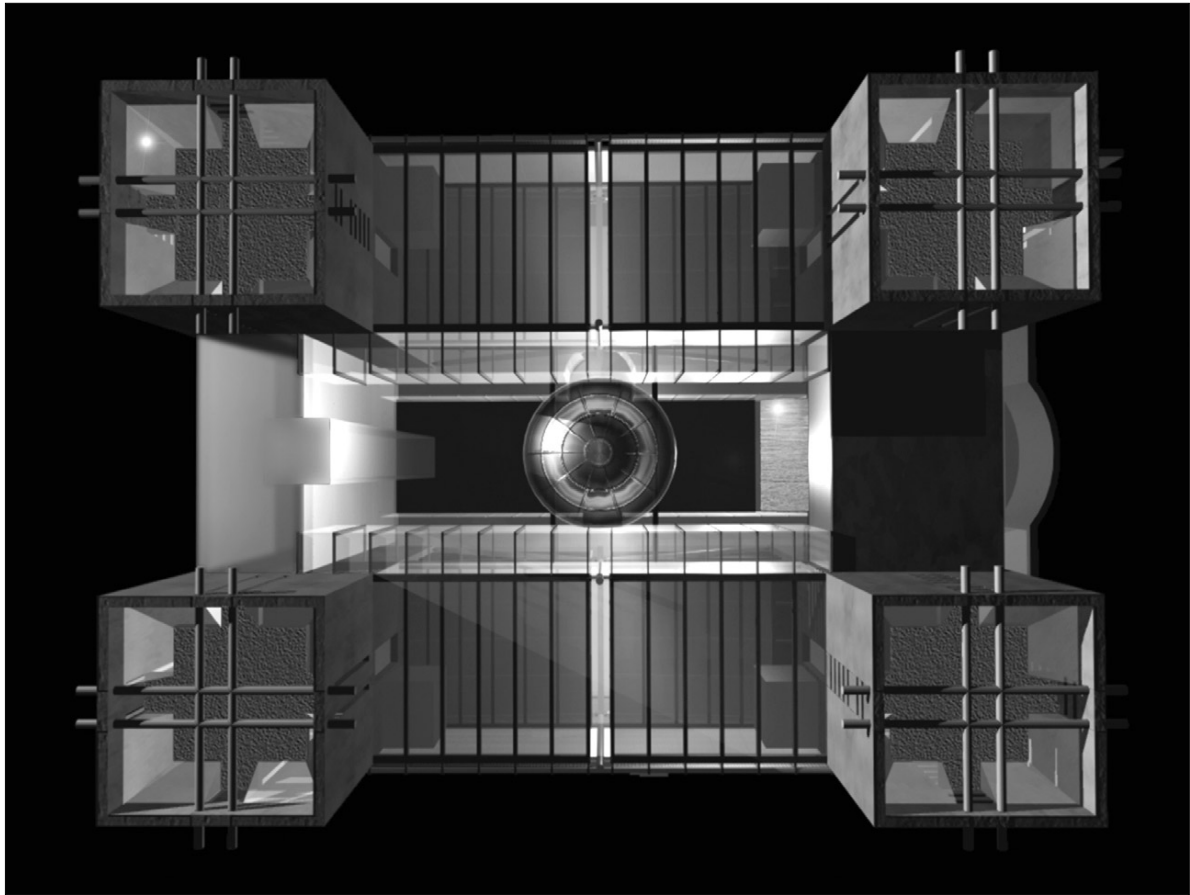


## 주한이란회교 공화국대사관

### New Chancery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eoul



#### 프로젝트와의 만남

11년의 미국유학생활 및 설계사무소 근무 등의 경험을 마감하고, 93년 귀국 후에 거취를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모 건설 설계 팀장으로 한국에서의 설계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기업건설사가 한창 투자사업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던

90년 중반에 해외 및 개발프로젝트의 설계 팀장이 되어 1년의 3분의 1을 해외출장을 다니던 시절, 1998년 이란대사관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설계수주라기 보다는 Turn Key 공사수주의 차원이었다. 국내 1, 2, 3위 업체의 제의를 받고, 대사관은 필자의 건설사를 선택했고 결국 필자의 설계팀에서 디자

인을 총괄하게 되었다.

본국의 외교부 건설국에서 선정한 이란의 건축사가 계획한 기본 스케치를 보내왔다. 국내법규와 상관없이 설계된 그림이었다. 여러 번의 변경을 거쳐서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1차 납품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종납품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대사가 부임하게 되

었고, 본국의 건설담당국장 또한 바뀌게 되었다. 새로운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이 유서 깊은 도시 Esbahan의 시장, 대사를 역임한 건축과 예술에 조예가 깊은 건설담당 국장이었다. 그의 대사관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의해서 설계는 전면 바뀌게 된다. 당시 필자는 건설사를 퇴직하고, 설계사무실에서 카지노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하고 있을 때였다. 1999년 12월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대사관 및 관저설계를 수행 해달라는 것이었다. 대사관이라는 특수성과 한번 관여했던 프로젝트라 마무리하고 싶은 욕심에 수락을 하게 되었고, 결국 대사관과 관저의 설계 및 감리를 맡게 되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는 조직의 크기 보다는 담당자의 서비스에 더 신뢰한다는 교훈을 체험한 셈이다.

#### 디자인배경

대사관 건축에서 성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Design Goal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건축적 특징이 재료나 공간구성 또는 장식적 요소 등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주변의 환경들과 그 건축물이 잘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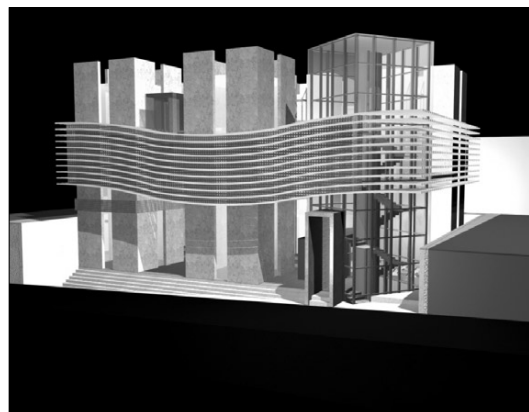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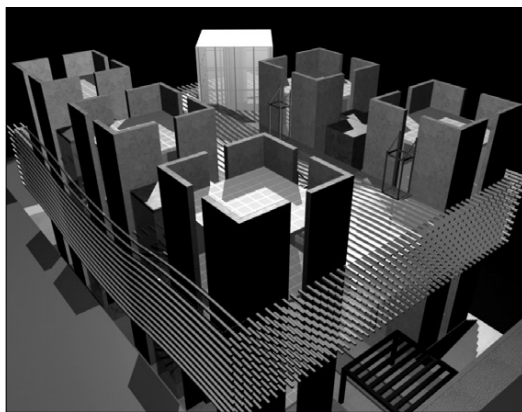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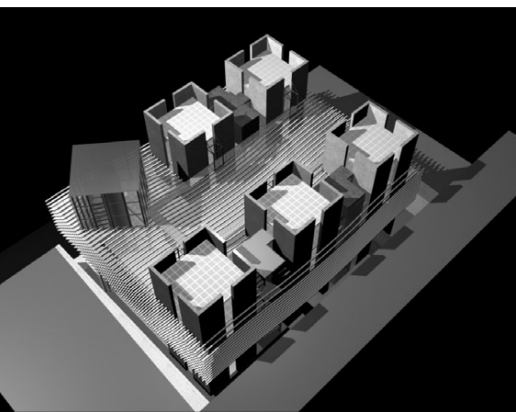
의 디자인은 첫 번째 Goal을 이룬 안이었다. 최종의 안은 공간구성에서 페르시아적인 공간구성에 충실했다고 보고 아울러 Modern한 Style과 Popular한 마감 재료인 노출콘크리트와 유리를 채택함으로써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건축에 대한 생각은 대략 이렇다. 인간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작은 우주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물, 공기, 녹지 그리고 일조(태양)이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축공간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4가지 요소들을 강조하고자 했다.

1층 입구에서 느끼는 개방감은 공기, Spg로 Enclosed된 2층과 4층을 통합하는 Atrium은 건물전체에 일조 채광을 해결하고 있고, 지하층의 Water Feature(분수)는 물, 그리고 건물주변의 조경은 Green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ublic Space는 과감히 개방되어 있고, 외부로부터 시각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내부의 사용자가 머무는 Private공간은 철저하게 외부와의 시각적 연계를 철저하게 허용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Style에서는 이국적인, 페르시아 풍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다만, 간접채광, 완전대

칭에서 주는 시원적인 평면 그리고 절제적인 Penetration 그리고 정면입구에 드리워진 Wire Screen에서 그들의 종교 문화적인 색채를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작품의 계획과정

3명의 서로 다른 취향의 대사들을 모시고 설계를 진행하는 일은 예상할 수 있듯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4번의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을 통해서 현재의 안이 어렵게 완성되었다. 기본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란의 대학교 수이자 건축가인 Farhard Ahmadi는 건축적 취향에 있어 Modernism과 Minimalism을 추구하는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진 건축가라고 생각한다. 그는 Dubai의 American University에서 주관했던 유명건축가 초청강연회에 중동을 대표하는 건축사의 한 사람으로 초청될 정도로 지명도가 있는 유명인이다. 이란 외교부에서 선발한 건축가이기에 그의 디자인능력에 대한 검증은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 동안 필자가 발주처 입장에서 겪어 보았던 세계의 유명 건축사무소 KPF, SOM, NBBJ, HOK, Callison, Gensler 등의 디자이너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감각이 있는 건축사라고 생각한다. 외국건축사가 한국의 법규와 자재에 대한 이해와 정보



가 부족한 것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일조건 및 사전제한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당국과의 협상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하기 쉽다. 건축사로서의 고집과 완성도에 대한 지나친 집착, 어쩌면 건축사로서 당연하겠지만 시공 불가한 요구들로 가끔이지만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늦은 밤까지 현장에서 또는 그의 호텔방에서 난상 토론하던 기억이 새롭다.

**작품에 담긴 건축적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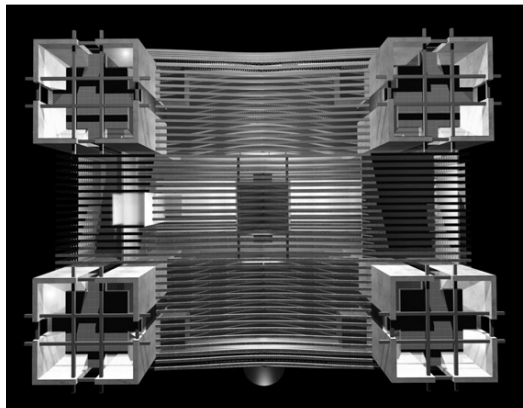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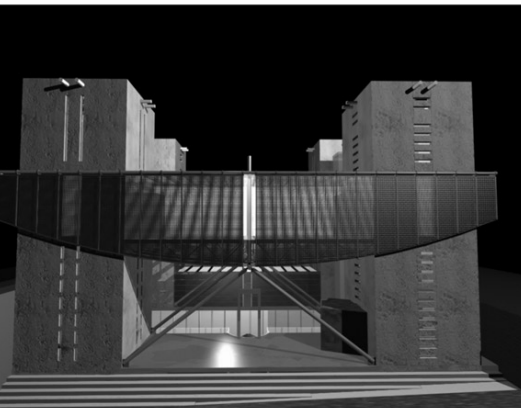
CONSTRUCTION Must Be Going,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진행을 저해하는 일들이 생긴다. 발주처와의 문제, 민원제기, 도면부재 등의 기술적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3차원의 건축물로 준공이 되어 탄생하기까지 그 모든 난관과 장애를 해결하고, 어려움도 감수하고서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연구해 내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사는 화폭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다. 아름다운 그림 한 장 그것은 건축의 시작일 뿐 진정한 완성은 건물로 준공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사의 작업에 대한 가치도 설계기간이나 감리기간중의 것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

다. 도면이나 스케치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건축물의 최종 Quality는 현장의 감리 건축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새 생명을 받는 산파처럼, 건축사는 조심스럽고, 혼신을 다하는 정신으로 프로젝트에 임해야 준공 후에 후회가 적을 것이다. 우리는 쉽게 경제원칙을 내세워 편리와 타협하고 정당화해버리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이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직업이라면 그가 얻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뿐 일 것이다. 최선을 다 했을 때의 후련함과 기분 좋은 피곤함, 그것을 위해 수백의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자기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설계팀, 공사팀, 담당 공무원 그리고 발주처 사람들, 5년을 함께 해온 프로젝트가 완공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은 그 건축물의 Scale에 관계없이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 그 자체였고, 아울러 더 잘했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도 남았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강북에서 처음 하는 프로젝트여서 겪었던 에피소드다. 발주처에서 전해준 지적도로 검증 없이 사용한 결과는 후일 혹독한 레슨

비를 지불하게 되었다. 착공을 위해 경계명시 측량결과 실제의 부지모양과 달라서 평면을 수정해야 되는 고초를 겪게 된 것이다. 거기에다 이 사실은 안 발주처에서는 옆집에 원상복구 청구를 요구하려는 상태이고 상대 쪽에서도 기득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공사는 정지되는 상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결국 현황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공사는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복병은 도로접근 코너의 1평 정도의 필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밝혀진 것이다. 대사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무한 상태. 수소문 끝에 그 필지의 주인을 찾아내었고,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당히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 및 통역의 역할을 해야 했다. 분명 SERVICE SCOPE에는 없는 일이었지만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EXTRA WORK라도 도울 수밖에 없었다. 외국대사관이라 할지라도 국내 건축법은 지켜야 하지만 사실 당시 대사관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우리나라도 당시 테헤란에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건축 중에 있었고, 현지에선 한국대사관측에 많은 예외적 조항으로 특별배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결국 대사관



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고, 그것은 현행법규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을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득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거지 없이 사실적인 접근으로 정면 돌파한 것이 문제해결의 KEY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흔히들 장해물을 넘기 위해서 편법이나 트릭을 쓰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신뢰를 잃게 되고, 전체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게 된다. 어렵지만 진실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하여 문화와 정서는 다르지만 진실은 누구와도 통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던 에피소드였다.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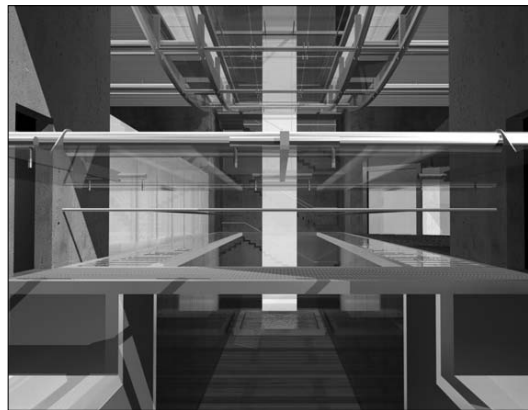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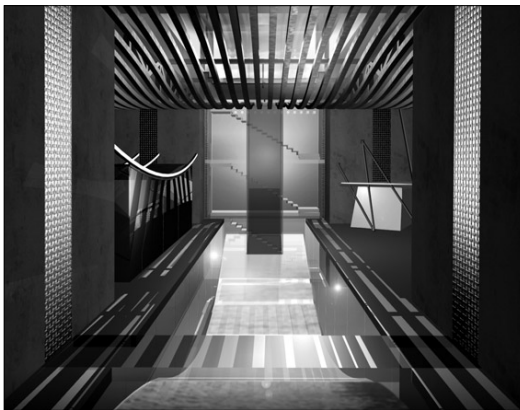
작년 충주대학에서 건축사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선진국의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인식은 한국에서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한다.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열과 고뇌가 필요하다. 그리고 흔히 디자이너와 설계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되고 있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시공과정에 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어서 진정한 공은 시공에 참여했던 수많은 모든 협력사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본다. 프로

젝트 Management상 감리건축사의 기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대사관건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Design Change가 이루어졌다. 시공상의 어려움과 하자요인에 대한 우려가 결국 Design Change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발주처의 의사결정 시간은 2~3주 걸려야 하는 상황, 시공자와 발주처 사이에서 상호 동의해야 될 Change Order가 Issue되기 힘든 상황이 많게 되었다. 서로가 팽팽하게 대치된 상황에서 공기만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필자는 감리자와 감독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적인 중재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필자였다. 결국 Design Change Order대신에 Construction Charge Directive를 이용해서 공사는 진행시키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준공 후 결산하는 안에 서로 동의키로 유도하고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동의시켰다. 현장 소장도 대기업의 직원 입장이기 때문에 문서적인 근거가 필요하였고, 가격결정을 할 수 있는 발주처의 공무원의 입장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었다. 결국 예정보다 9개월 정도 늦게 준공이 되었다.

대사관프로젝트는 두 개의 다른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절충해서 공유하며, 공존의 미덕을 살려가는 자세가 필수 불가결하다. 한국 법규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었던 디자인 파트너 그리고 건축사에게 무한의 자유를 부여해 주었던 전임 주한이란대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건축가 Architect는 Arch + Tect 즉 모든 Technician의 대부(Arch)인 것이다. 단순히 디자이너가 아니고,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Conductor인 것이다.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해결사인 것이다. 때문에 평소 Management와 리더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의 아이디어는 한 사람에게 나오지만 최종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는 Teamwork로 완성한다. Architect는 그 팀의 중심이며 리더이다. 고객감동의 실현, 그것은 현대에서 요구하는 경제구조의 질서이며 문화다. 대사관 프로젝트의 또 다른 건축사의 역할은 민간외교관으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마치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이민자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연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 건축사의 위상은 아직 선진국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과에 대한 인기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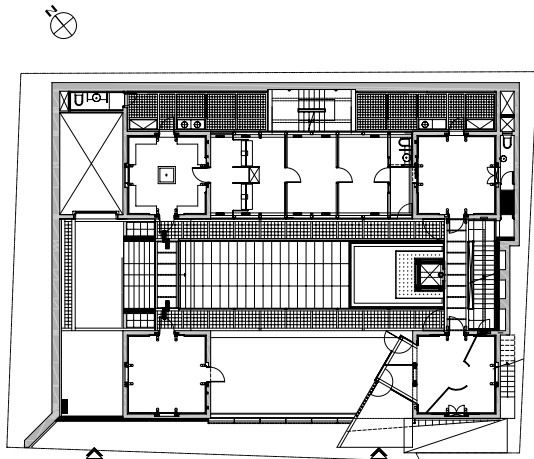
높아지는 것을 보고, 최근 10년 건축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디자인 질에 대한 일반인의 요구가 변화할 때, 건축사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위상도 병행하리라 기대한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로지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건축 작업을 해오고 계신 많은 선배 후배 건축인들에게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좀 더 나은 세상을, 환경을 만들어나갈 책임과 의무는 누가 인정해 주질 않아도 유사 이래(有史以來)로 존재해 왔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건설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환영 받을 것으로 믿는다. 그들의 마음은 어린이가 쌓기 놀이를 할 때 갖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우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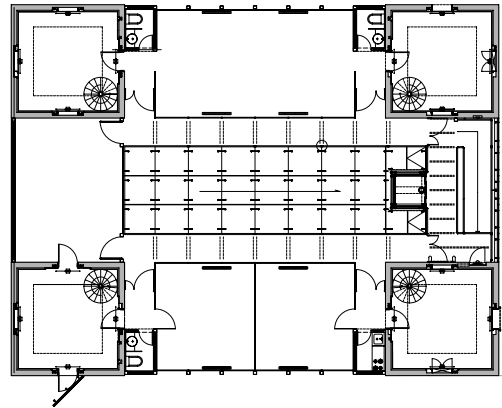
축업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도록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그리고 지면을 빌어 이란대사관 그리고 대사관저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Consultants와 시공업체들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함께 감리를 맡아준 이호윤 소장, 정재선 과장, 설계기간중의 이상혁 소장, 이창희 과장, 시공자인 엘지건설의 이창훈 현장소장에게 너무 수고 하셨다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고, 이란대사관저로 받은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의 공을 그분들에게 돌리고 싶다. 또한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업무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주한이란대사관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재정담당 Aminian씨 그리고 디자인 파트너 Mr. Ahmadi씨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 싶다. ■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9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650㎡
건축면적	356.97㎡
건폐율	54.9%
용적률	113.2%
규모	지하 3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조 (일부철골조)
내부마감	바닥-회강석, 대리석, T25우드푸로링, T34 3중접합유리, 유리블록 / 벽-노출콘크리트, T60 압출성형시멘트 판, 석고판위 비닐수성페인트 / 천장- 석고판위 비닐수성페인트, 소부도장알루미늄 유공패널, T40 맑은 복층유리 (Spg), 스틸복합패널(Sgp)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T60~70 압출성형시멘트 판, T40 맑은복층유리(Spg)
설계담당	이호윤, 이상혁, 이창희, 김지희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